

보도 일시	2022. 11. 11.(금) 09:00	배포 일시	2022. 11. 11.(금) 09: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	책임자	팀장 오세용 (044-203-2049)
		담당자	사무관 최지훈 (044-203-2055)

문체부,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 디자인 부문 동상 수상 - '2021년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 정부 부처 최초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2021년에 추진한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이 11월 9일(미국 뉴욕 현지시각) '2022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2022 CLIO Sports Awards)'의 디자인 부문에서 동상(Bronze)을 수상했다.

'생명나눔 유니폼'이란 한국프로축구연맹 소속 수원삼성블루윙즈와 제주 유나이티드에프시의 유니폼을 활용해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기획한 캠페인이다. 양팀 선수들은 2021년 5월 12일 경기에서 자신의 유니폼 가슴 부분에 상대 팀 유니폼을 장기 모양으로 재단해 부착하고 경기에 임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유튜브 채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https://youtu.be/l8Ns65EsVnw>(생명을 구하는 약속, '생명나눔 유니폼')

'클리오 어워드'는 1959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국제 광고제로서 칸국제 광고제, 뉴욕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광고제로 꼽힌다. '클리오 어워드'에서 2014년에 신설한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는 창의적인 스포츠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시상하는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펼쳐왔다."라며, "앞으로도 독창적인 기획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적인 디지털 콘텐츠와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따로 붙임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 사진